



주 제:	“깨끗하게 되어라”	“연중 제 6 주일”	2009년 2월 15일
복음 묵상:	[마르 1,40-45]	[레위 13,1-2.44-46]	[1 코린 10,31-11,1]

한센병이라고 불리는 나병은 환자 자신에게 고통스럽고 참혹한 병이면서 동시에 사회와 격리시키고 대인관계도 단절시키는 결과를 가져오는 병이기도 합니다. 제1독서에서 레위기의 말씀을 통해서도 알 수 있듯이 구약시대에 사제는 나병환자를 “부정한 사람”이라고 선언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나병환자는 “옷을 찢어 입고 머리를 푼” 상태에서 “부정한 사람이오, 부정한 사람이오”라고 외치며 다녀야 했고 “혼자” 살아가야 했습니다. 사회로부터 떨어져 나가 감당해야 했던 것뿐만 아니라 자신에게 주어진 고통의 상황 또한 감당해야 했던 나병환자였습니다. 그가 자신의 한계를 넘어서서 모든 희망을 걸고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었을 때, 예수님의 한마디 말씀은 너무도 명료했습니다. “내가 하고자 하니 깨끗하게 되어라”. 예수님께서서는 측은지심의 사랑으로 나병환자를 어루만져 위로하시고 그의 병을 낫게 해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 그것이 사람을 더럽힌다”(마르 7,20)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나병은 무서운 병이지만, 더 무서운 것은 걸은 반듯해 보이면서도 속은 교만과 위선으로 가득 찬 모습일 것입니다. 자신의 걸모습뿐만 아니라 속마음까지도 사랑과 자비의 손길로 어루만지고 치유해 주실 예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예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할 수 있는 용기와 믿음이 신앙인들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예수님께 희망을 두고, 예수님께 믿음을 두고 살아가고자 하는 사람은 제2독서에서 사도 바오로의 말씀처럼 “모든 것을 하느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십시오.” 하느님께 영광을 드리는 삶을 살아가고자 한다면 예수님께서서는 분명 우리 모두를 당신의 생명으로 깨끗하게 변화시켜 주실 것입니다. (의정부 김용석 신부님 강론에서)

1. 가족 동정 및 기도 요청

- **죽입단:** 김현균 님의 형제님이 주님의 부르심에 기쁜 마음으로 응답하시어 한 가족이 되셨습니다. 성가대에 입단하심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모든 단원들은 테너파트에서 봉사하실 님의 형제님을 위하여 축하와 함께 주님의 축복이 함께 하시길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신계완 대건 안드레아 형제님 가족과 함께 2/13-16까지의 여정으로 주말 여행을 떠납니다. 즐거운 여행길이 되시길 기도합니다.
- **알토의 신행주 요세피나 자매님의 쾌유를 빌면서** 알토파트에서 매일 시간을 정하여 각자 묵주기도를 같은 시간에 드리고 있습니다. 시간이 허락하시는 시간을 정하여 기도에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오전 9시 30분/ 오후 1시 / 오후 9시 30분/ 그외는 시간이 허락하시는대로...

공지사항:

1. 각 파트별로 주중 연습 안내
 알토 파트: 2/9(월) 오전 11시 최 효원 도미니카 자매님택
 남성부 (테너, 베이스): 격주 금요일 저녁 7:30 pm (다음 모임은 2/20 예정)
 소프라노: 매주 목요일 저녁 미사후 성당에서 연습할 것임
2. 성가 연습 자료실 안내
 - 성가대에서 연습하는 거이 모든 곡을 개인적으로 연습할 수 있도록 음원을 본당 성가대 웹에 수록되어 있습니다. 연습에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http://www.sjkoreancatholic.org/node/5240>
 - 화답송은 웹에 성가대 연습실에 각 파트별로 올라있으니 연습을 하십시오.
<http://www.sjkoreancatholic.org/node/11080>



성실 성가대의 김진희 유스티나 자매님의 음악회에 초대합니다.

Sunday, February 15th 2009
4 PM
Reay Recital Hall
Community School of Music and Arts
230 San Antonio Circle
Mountain View, CA

Sunday, February 22nd 2009
4 PM
Paulin Hall
Pacific Union College
1 Angwin Avenue
Angwin, CA

함께 하는 좋은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 복음 [마르 1,40-45]



나병환자 하나가 예수께 와서 무릎을 꿇고 애원하며 "선생님은 하고자만 하시면 저를 깨끗이 고쳐 주실 수 있습니다" 하고 말씀드렸다. 예수께서 측은한 마음이 드시어 그에게 손을 갖다 대시며 "그렇게 해 주겠다. 깨끗하게 되어라" 하시자 그는 곧 나병 증세가 사라지면서 깨끗이 나왔다. 예수께서 곧 그를 보내시면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고 다만 사제에게 가서 네 몸을 보이고 모세가 명한 대로 예물을 드려 네가 깨끗해진 것을 그들에게 증명하여라" 하고 엄하게 이르셨다. 그러나 그는 물러가서 이 일을 널리 선전하며 퍼뜨렸기 때문에 그 때부터 예수께서는 드러나게 동네로 들어 가지 못하시고 동네에서 떨어진 외딴 곳에 머물러 계셨다. 그래도 사람들은 사망에서 예수께 모여 들었다.

1분 명상

♡ 무엇을 하던, ♡



하느님께 영광이 되는 일은
바로 이웃을 위한 일을 하는 것입니다.
바로 사도는 이런 면에서 자기를 본받으라고
아주 자신 있게 얘기합니다.
"무슨 일을 하든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려고 애쓰는
나처럼 하십시오.
나는 많은 사람이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내가 아니라 그들에게 유익한 것을 찾습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처럼
여러분도 나를 본받는 사람이 되십시오."
그러면
내가 아니라 이웃에게 기쁨이 되는 일.
내가 아니라 이웃에게 유익이 되는 일.
어떤 일이 이런 일이겠습니까?
바로 내가 본받았던 예수님께서 하셨던 일,
예수님께서 하늘에 고고히 계시지 않고 이 세상에 오셨으며
하느님 아버지의 사랑으로 모든 것을 하셨습니다.
병자를 낫게 하시고
더러운 영을 쫓아내시고
가난한 사람을 위로하시고
억압받는 사람을 구해내시고
영육 간에 굶주린 사람들을 배부르게 하셨습니다.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 아버지의 사랑으로 이 모든 것을 하신
것입니다. (김찬선 레오나르도 신부님)